



이것은 멜빈목사님의 책과, 그 책을 가지고 사역해 온 저의 글을 월간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케냐 멜빈대학교를 위해서는 영어로 만들고, 한국에서는 한글판을 만듭니다.

2025년 5월

평신도목회LPM과 PACE사역

평신도목회LPM/PACE는 1978년 미국의 멜빈목사님께서 시작하신 것으로 "평신도의 목회적돌봄" 사역에 대한 것입니다.



추천사

"스타인브런 박사는 또 다시 뭔가를 해냈다. 이런 훌륭한 책에서 그는 평신도로 하여금 회중에 대해 목양돌봄을 제공하도록 할 수 있는 것에 관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고 또 뭔가를 가르쳐준다. 우리는 여기 프래저 기념교회(Frazer Memorial Church)에서 평신도목회 사역(Lay Pastors Ministry)을 5년 이상 해오고 있는데 엄청난 결과를 가지고 왔다. 그것은 된다! 그리고 그것은 성서적이기 때문에 된다."

존 마티슨 박사(Dr. John Ed Mathison)
프래저 기념교회 담임목사
몽고메리, 알라바마

"이론가들은 좋다. 실천가들은 더 낫다. 그런데 멜빈은 양쪽이다. 그의 생각은 수정처럼 분명하다. 그리고 평신도에 대한 그의 신학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그런 방법에서 생겨났다. 우리 모두는 제한된 시간, 제한된 자료들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뭔가 달라지게 할 수 있는 책들을 읽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 이 책은 분명히 그런 책들 중의 하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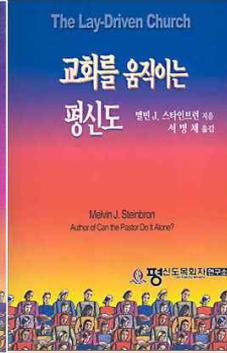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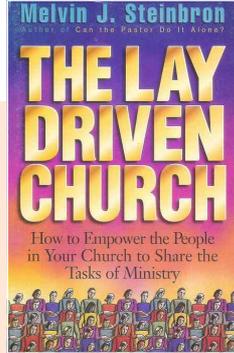
짐 갈로우 박사(Dr. Jim Galow)
스카이라인 웨슬리교회 담임목사
레몬그로브, 캘리포니아

"다음 세기의 전염적인(성장하는) 교회는 오늘날의 전통적인 교회와는 아주 다를 것이다. 하나의 혁명적인 차이는 목양에 상당한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모든 사람은 정규적인 목양을 받아야 될 것이다—은사를 받고 준비된 평신도로부터! 이 책은 이런 움직임을 수천만의 회중들에게 촉매작용을 하고 또 그들을 환기시킬 것이다."

조지 헌터(George G. Hunter)
에스베리신학교 선교학 교수
월모르, 켄터키

"나는 항상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평신도를 자유롭게 해주는 이론을 믿어왔다. 교회를 움직이는 평신도라는 이 책에서 멜빈 스타인브런은 이론을 사실로 바꾼다. 성서적인 원리들을 사용하면서, 그는 그것이 일어나는 실제적인 방법들을 제공한다. 이 책은 목회자들과 평신도들에게 상당한 격려가 된다."

로버트 딕슨 박사(Dr. Robert W. Dickson)
희망장로교회 원로목사
리치필드, 미네소타



© copyright 2004

"나는 20년 이상 멜빈 스타인브런 목회의 열매를 보아왔다. 그것은 선택된 것이다! 그는 단지 평신도들을 준비시키라고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천하였다. 이 책은 그들의 목회들을 나누기를 원하는 목사들을 위해, 그리고 목회에서 돕기를 원하는 평신도들을 위해 훌륭한 도구가 된다. 멜빈은 개인적인 경험으로부터 쓰고 있으며,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의 목회적인 마음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이다. 그가 상세히 설명하는 성서적 원리들은 작은 시골교회에서 그리고 큰 도시교회에서도 가능하다. 그것은 당신의 교회에서도 가능할 것이다."

론 랜드(Dr. Ron Rand)
목회연구소장

"이 책 『교회를 움직이는 평신도』는 좋고 도움이 되는 책이다. 그것은 목사들과 교회들로 하여금 준비되도록 하는데 격려할 것이며 목양의 중요한 목회에 평신도들이 동역자가 되도록 해준다."

신양탄 박사(Dr. Stan Yang Tan)
플러신학교 심리학 교수
파사디나, 캘리포니아

"효과적인 목회를 위한 하나님의 전략중의 하나는 성도가 증가(multiplication)되는 것이다. 성서적이고 실제적인 이 책은 당신으로 하여금 성도를 늘리는 목회를 하도록 도울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교회의 힘을 발휘할 것이다. 목회에서 모든 것을 혼자하려는 목사들은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 필요한 것을 더 이상 공급해(afford)줄 수 없는 비성서적인 접근이다. 이 책 『교회를 움직이는 평신도』는 목회를 위한 에너지를 투하(releasing)하는 것이다. 이 책을 읽는데 시간을 투자하고 그것이 말하는 것(preaching)을 실천하면 당신의 교회로 하여금 교회가 되도록 힘을 방출하는데 사용된 배당금(지분)들을 다시 돌려 받을 것이다."

켄트 헌터(Kent R. Hunter)
창조적인 컨설턴트, 인디애나

"평신도목회를 19년간 이끌어오는 동안 스타인브런 박사는 실제적인 노하우(know-how)와 함께 영적인 생명력(vitality)의 놀라운 혼합을 증명하였다. 이 책은 열정과 실천으로 시작된(originated) 그의 깊은 마음으로 당신을 들어가게 할 것이다. 예수님과 함께 그가 동행한다는 것이 그의 글(가르침)을 통해 분명히 나타난다. 이것은 교회지도자들과 평신도목자들(lay pastoral-care giver) 양쪽을 위해 감화를 주는 책이다."

닐스 프리버그 박사(Dr. Nils C. Friberg)
베델신학교 pastoral care 교수
세인트폴, 미네소타



(PACE 훈련 교재, 1-7과)

이것은 첫 번째 책, "목회, 혼자 할 수 있는가?" 에서 중요한 것들은 빼내어 만들어진 것이다. 멜빈 박사는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에 있는 칼리지힐 장로교회(CHPC) 에서 이 사역을 시작했고, 이 사역을 통해 박사학위 논문을 썼고, 그것이 나중에 책이 되어 마침내 정식으로 출판되었다. 그래서 그는 이 책에서 12개의 중요한 개념을 얻어 미국에서 35년 동안 사용된 PACE 훈련 교재(35페이지짜리) 만들었다. 한국에서, 그리고 이제는 케냐 Melvin대학과 나가랜드 PACE신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다.

1과: 개념과 신학이다.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이 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에 대해 말한다. 우리는 이 단원에서 "평신도목회란 무엇인가" 를 알게 된다.

2과: 돌봄에 초점을 맞추고, 누가 그것을 필요로 하는가? 답은, 모든 사람이 돌봄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돌봄은 이 사역의 핵심이다.

3과: 우리의 할일은 무엇인가? PACE 자체에 대해 설명하고 추가적인 헌신에 대해 설명한다. 이 과를 통해 평신도사역자들이 책임감을 갖게 된다.

4과: 부름 받음에 대한 것이다. 목회자의 소명만큼이나 중요한 것이다. 즉 하나님이 부르신 평신도, 즉 주님께서 그들도 불렀다는 것을 강조한다. 나는 평신도들이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든 아니든, 그것이 그들의 사역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 과를 통해, 그들은 그들의 소명에 대한 더 강한 개념을 갖게 될 것이다.

5과: 관계성에 대한 것이다. 이것은 돌봄 사역에서 중요한 요소이다. 교회는 이러한 측면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 과를 통해 이것을 진지하게 생각하도록 환기시킨다.

6과: 경청에 대하여. 특히 경청에 초점을 맞춘 이 훈련은 사역의 모든 곳에서 활용된다. 우리는 이것을 재교육 시에도 다루어야 한다.

제7과: Being과 Doing에 관한 것으로, 이 사역은 PACE를 개인적으로 하는 것(to do) 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더 효과적으로 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내면적으로 준비하고 내면적으로 성숙해야 한다. (to be)

(PACE 훈련 교재, 8-12과)

8과: 어떻게 우리가 건강한 영성을 가질 수 있을까. 모든 교회가 이것을 위해 잘하고 있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다.

9과: 방문에 대하여.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쉬운 주제이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집을 방문하는 것을 약간 두려워하므로, 이 장에서 다루게 된다.

10과: 전문적이 되는 것. 누가 전문가인가? 일반적으로 우리는 특별한 분야에서 학위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지만, 여기서 평신도사역자들은 학위나 자격증을 따지 않고도 전문적이 될 수 있다. 할렐루야교회의 김상복목사님은 평신도사역자들은 PACE 사역에서는 전문가라고 말한다.

11과: 신뢰성. 이것은 돌봄사역에 대한 또 다른 중요한 것인데, 우리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다! 얼마나 중요한가! 나는 케냐 다에서 두 명의 C.P.E. 지도교수로부터 이 문제의 중요성을 여러 번 들었는데, 이 사역에서 다시 제기된다.

12과: 이 사역에서 어려움을 잘 관리하라.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은 평신도사역자가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은 방문하기에 바쁘고, 어떤 평목들은 본인이 게으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다루면 그것은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주고, 또한 우리를 성장하게 한다.

(훈련교재를 다시 생각해본다)

우리는 한국에서 15년동안 멜빈의 PACE 훈련교재를 사용해 왔다. 그것은 첫 번째 책에서 나온 것이었고, 그것을 매우 잘 사용했다. A/4 크기의 종이 30페이지 정도로 아주 간단한 교재였다. 나는 어느 사역이든 지의 훈련교재를 생각해본 적이 있다. 첫째, 간단한 매뉴얼이어야 하지 복잡하지 않아야 한다. 두 종류의 훈련자들이 있는데, 하나는 개념을 의미하고 이해하기 쉬운 간단한 매뉴얼(3~40페이지)을 좋아하는 사람들이고, 다른 하나는 더 복잡하고, 더 많은 양의 매뉴얼(80~100쪽)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교회마다 그런 다양한 매뉴얼이 있다는 것을 나는 알게 되었다. 나는 왜 두 그룹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해하지만, 내가 두 그룹 중에서 선택되어야 한다면, 첫 번째 것인 간단한 매뉴얼을 선택한다.

왜 그런지 얘기해보겠다. 대부분의 사역은 매우 잘 시작하지만, 곧 또는 얼마 지나지 않아 시작 때의 열정은 사라진다. 일단 그들이 앞으로 나아가는 데 어려움을 느끼면, 그들은 책에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하지만, 대부분의 책은 시작 단계를 위해 쓰였고, 물론 어떤 책들은 매우 성숙해진 것도 있지만, 보통은 그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시작하는지 등을 말해준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경계선을 넘어서 움직이지 못하고, 단지 시작에 머무르고 만다.

그런 책들은 알은 면만 이야기하기 때문에 시작단계에서. 그리고 전체 사역이 1~10단계라고 하면, 대개 시작인 1~3단계에만 투자한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에너지를 시작 단계에서만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방향과 안내하기)

둘째, 훈련 매뉴얼은 시작시에만 사용해야 한다. 시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무 사역이나 보라! 그들은 사역의 합리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지만, 시작하지도 못하고 욕조에 뛰어들어 죽어버리고 마는 격이다. 시작이 없다면, 우리는 행동을 취하기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므로, 무엇이든 우리는 시작해야 한다. 훈련 매뉴얼은 시작의 능력이어야 한다.

셋째, 현 단계에서는 세부적이지 않고 일반적인 관점에서 방향과 지침을 제시해야 한다. 모든 매뉴얼은 예를 들어, 우리의 PACE 매뉴얼은 평목들을 세우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그들이 누구이며, 그들이 해야 하는 일 같은 것이다.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명확한 목표와 목적이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나는 먼저 실천해보고 그 다음에 이론화하기를 제안한다. 이해가 되는가? 보시다시피, PACE 매뉴얼은 오하이오에 있는 칼리지 힐 장로교회의 현장 실습에서 나왔고, 나중에 책, 매뉴얼, 시스템으로 발전되었다. 내 말은, 나중에 이론화하라는 것이다. 왜? 사람들은 그것이 잘 작용하는지 보기를 원한다? 즉 임상된 결과물. 확실히 PACE 매뉴얼은 실천에서 나왔고, 나중에 그것이 이론화되었다.

(구비/준비시키는 것)

목사님들은 성도들이 사역하도록 구비시키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거기서 본인들의 위치는 또 다른 문제다. 평신도목회 전문가들은 사역에서 성공하려면 담임목사가 조금 비켜서야 한다고 조언한다. 그런 다음 성도들이 위로 올라와서 그들이 해야 할 일을 한다. 심지어 그들은 평신도들에게 "올라와서 여러분의 사역을 해라" 라고 말하지만, 성도들은 그렇게 할 공간이 없고, 그래서 거기에 올라갈 수가 없다. 목사님이 한



발짝 물러나면 평신도들이 올라와서, 둘 다 함께 사역을 함께 한다.

이것은 올바른 개념이지만 목사가 옆으로 비켜서기가 쉽지 않다. 왜냐하면, 그들은 오랫동안 그들의 위치, 그들의 기능, 그들의 역할을 맨 앞에서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특히 평신도들에게 그것을 내 주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평신도들은 그들의 제자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 자리를 지속해서 유지하고 싶어 한다. "너는 나보다 열등하다"라는 생각이 무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

다시 말해 담임목사는 평신도가 자신의 아기(baby)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뭔가 권한을 줄 생각을 할 때마다, "내가 키웠는데"라고 생각하면서 꺼린다. 하지만 그들은 더 큰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이런 위험을 감수해야 하고, 그러면 그들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사실, 그것을 성도들에게 주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자신의 짐을 나누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평신도목회의 진짜 핵심이다. 많은 목회자들이 "목회, 혼자서는 할 수 없다"고 말하듯이, 이것은 평신도사역의 한 가지 이점인데, 그의 아기(baby)를 다른 평신도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그의 짐을 평신도들에게 나누어 준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 낫다.

(그것이 성장 과정이다)

일부 목사들은 자신들이 주면 교회는 물론 자신들에게도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두려워한다. 그게 무슨 뜻인지 이해한다. 그들의 걱정은 평신도들이 그들이 그것을 하도록 내버려두면, 교회에 혼란이 생기리라는 염려에서이다. 그렇다. 처음에는 혼란스럽고, 또 그들은 실수도 하겠지만, 그들이 성장하고 더 잘하려고 노력하는 그것이 바로 성장 과정이다. 그래서 구비시킴이 필요한 이유이다. 구비시킴 없이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12절에서 바울은 목회자의 일은 성도들을 구비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하는데, 무엇을 위해서인가? 그들의(평신도들) 사역을 위해서이다!

목사님의 주된 할 일은 무엇인가? 많지만 성도들을 구비시키는 것이 일차적인 일인데, 목사님이 혼자 할 경우 해야 할 일을 조사한 것이 있는데, 교회 문을 열고부터 문을 닫는 일까지 46개라는 말이 있다. 목사님은 설교, 성찬, 행정, 리더십과 같은 몇 가지 일만 하면 된다. 다른 것들은 일반 평신도들이 충분히 할 수 있다.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이고 더 생산적인가? 나는 나가랜드에 가서 다 마뮐에 한 교회에서 설교한 적이 있다. 거기서 나는 "1+99"라는 주제로 설교했다. "1+99"는 한 명의 목사와 99명의 평신도를 의미한다. 물론 그곳에서는 이것을 강조했다.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이냐? 한 사람이 하는 것, 또는 99명이 하는 것. 물론 후자가 훨씬 낫다. 우리가 이 계산을 알고는 있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것이 단지 수학적이라고만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단지 수학인가? 아니다. 이건 사실이다.

(구비 및 재구비)

또한, PACE 사역에서, 평신도들은 그것을 하기 위해 구비됨이 필요하다. 훈련이 없으면, 사역은 일어날 수 없다. 그러나 또 다른 문제가 있다: 훈련과 재훈련인데 그것은 또한 대부분의 목사에게는 도전적이다.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시작단계에서 준비를 갖추어주는데는, 일단 사역을 시작하면 재구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그들은 처음에는 아주 잘 했지만, 그것은 단지 시작점일 뿐, 단지 시작 단계일 뿐, 어떤 의미에서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 결혼식이 결혼생활과 다르듯 시작하면 바로 유지관리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한다. 시작은 결혼식과 마찬가지로 몇 분 밖에 걸리지 않지만 관리, 유지, 보수는 영원하다. 예를 들어, 우리는 인도의 Nagaland에 PACE 신학교를 시작했다. 그것은 수개월 동안 준비되었지만, 개교식은 단 몇 분밖에 걸리지 않았고, 사람들은 개교식에 참석하기 위해 모였다. 그런데 행사가 끝난 후에 모두가 해산했다. 그 이후로, 우리 학교는 유지하는 방향으로 바로 바뀌기 시작했다.

그런 식으로, 어떤 사역이 시작된 후에는 반드시 재구비가 필요하다. 그러면 구비시키는 것이 뭐지?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사람들은 처음에 무언가를 배우려면 학교에서 많은 새로운 것을 공부한다. 그러나 공부할 때는 그것에 만족하지만, 졸업하면 과거의 그런 공부에 더 이상 관심이 없다. 심지어 그것은 매우 충격적이고 흥미가 있었고, 또한 그들에게 거의 새로운 것이었지만, 졸업하고 나면 그들은 이제 더 많이 업그레이드하기를 원한다. 이와 같이 기본적인 구비를 갖춘 후에 목사님은 그들을 어떻게 재구비할 것인지를 생각해야 한다. 재구비는 기본적인 구비, 스타트업 구비와는 전혀 다르지만, 대부분 목회자들이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 시작할 때는 완벽하게 했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은 부목회자들의 손에 맡기고, 더 이상 담임목사가 할 일이 아닌 그들 자신의 책임이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을 소홀히 하니 좋게 시작하

되 곧 물에 곤두박질쳐서 빠져 죽는 모습이 되 버린다.

(두 가지 시간 프레임)

나는 다음과 같이 생각한 적이 있다: "훈련은 짧을수록 좋은가? 또는 "더 많은 훈련을 받을수록 더 많은 헌신을 할 수 있는가?" 또는 "훈련을 덜 받을수록 더 많은 헌신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은 좀 우스운 질문이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의미가 있다. 그렇지 않은가? 훈련과 관련하여 헌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다. 긴 훈련을 받으면 더 많은 헌신을 할 수 있는가? 아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특히 이 바쁜 시대에, 이 정보화 시대에는 더 그렇다. 나는 한국 교회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아시아시피 우리 기독교 역사는 한 세기가 조금 넘었다. 처음에는 부흥회가 필요했고, 곧이어 대부분의 성도들이 성경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성경공부가 필요했고, 나중에는 3년간 훈련했다가, 짧은 기간에 선교 교회로 바뀐 후 제자훈련이 필요했다. 게다가 많은 파라체치 사역들이 한국 교회에 수입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경이다. 우리의 사역(LPM/PACE)도 이 시점에 시작되었다. 많은 종류의 사역 패러다임이 시작되다.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궁지에 몰린 것은 필요한 것을 다 해봤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직도 일부 교회, 많은 교회들이 3년간의 제자 만들기 패러다임을 채택하고 있다. 목회자들은 '훈련을 더 할수록 더 헌신'이라는 패러다임을 생각하지만, 교인들은 격납고에서 3년을 기다릴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많은 것을 배웠고 할 일을 알고, 날아갈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전히 전통적인 교회들은 목사님들이 오래된 패러다임을 생각하고 있다. 더 많은 훈련 더 많은 헌신. 3년 간의 훈련 후에 그들은 그들이 배우고 훈련한 그들의 모교회에 머물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은 즉시 그 교회를 떠나 그들이 배운 지식과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교회들을 찾는다.

그렇다. 확실히 그들은 더 많은 훈련이 필요하지만 지금은 더 이상의 기초 훈련이 필요하지 않다. 그들은 지금 '이륙하고 비행할 수 있는' 단기간의 구비됨(equipping)만이 필요하다.

(예습과 및 재교육)

우리가 어떤 사역을 시작할 때, 사람들에게 동기 부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들은 어떻게 이런 동기를 얻을까? 나는 그것을 발견했고, 또한 멜빈 박사는 그의 책과 개인적인 팩스에서 강력하게 충고했다. 왜냐하면, 수년 전에 멜빈과 나는 팩스를 사용해서 의사소통했기 때문이다. 그는 이 사역을 시작하려면 그의 첫 번째 책 '목회, 혼자 할 수 있

(USA) LAY PASTORS MINISTRY (1978-2020)



는가?'의 예습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중에 나는 이 지침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다. 목회자들은 바쁘고 평신도들도 대부분 책을 혼자 읽고 공부하는 것에 관심이 덜 해서, 혼자 공부하라면

잘 안 한다. 물론 가끔 특이한 경우도있긴하다. 한 남자 평신도가 첫 번째 책, "목회, 혼자 할 수 있는가?"를 읽었다고 한다. 그의 담임목사가 그에게 그 책을 읽어보라고 주었기 때문이다. 그는 나중에 자신의 교회가 책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되길 원했기 때문에 책을 읽는 동안 눈시울이 뜨거워졌다고 고백했다.

물론 이것은 가능한 것이지만, 그들이 함께 모여서 공부할 때 그들은 이 사역에 대해 훨씬 더 많이 배울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토론하고, 곱씹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중에 그들이 PACE 구비 세미나에 참석했을 때, 그들의 마음은 이 사역을 하기 위해 이미 동기부여 되어있으니, 이것은 읽지 않고 훈련에 참석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많은 교회의 훈련을 통한 나의 진짜 경험이다. 나는 이 훈련을 15년 넘게 했다.

두 종류의 교회가 있었는데, 어떤 교회들은 첫 번째 책을 미리 보고 나의 직접적인 훈련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내가 가르치는 것을 받아들이기 준비가 되어 있고, 그들을 훈련할 준비가 되어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50%의 동기부여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하는 일은 나머지 50%를 채워주는 일이다. 그들이 정말로 행동을 취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내가 발견한 것이다.

(예습의 중요성)

나는 대부분 이틀 밤 동안만 훈련하기로 결정했다. 왜냐하면, 내가 시골 교회에 내려갈 때, 나는 그들이 내가 그곳에 머무는 것에 대해 부담을 주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차를 가지고 가서, 호텔에서 하룻밤만 묵고 서울에 있는 집으로 돌아왔다. 이를 저녁으로 대개 오후 7시에 시작해서 자정 12시에 끝나고, 다음 날 저녁 7시부터 자정까지 훈련을 마치고, 나는 서울로 돌아올 수 있었다.

대부분 시골 교회는 재정이 충분하지 않고, 그들은 나의 식사와 호텔료를 지불해야 하며, 또한 그들은 나의 강의료도 따로 지불해야 했다. 그래서 나는 이틀 밤 동안만 훈련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예습을 하고 참석했을 때는 80~85% 동기부여의 결과를 가져왔지만, 예습 없이는 50~60%만이 동기부여 되었다. 그래서 전자는 에너지를 천천히 방출하면서 대부분의 사역이 성공할 것이지만, 여러분이 추측하듯이, 안 그런 사람들은 50-60% 동기부여밖에 안 되어 사역에서 성공하지 못할 경우가 많다.

내가 발견한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의 교회를 사전에 방문하는 것인데, 주로 일요일 오후 예배나 수요일 저녁 예배로. 그래서 이 사역에 대해 전 교인에게 설명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배 후 담임목사에게 지원하고, 그 다음 달에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책을 주는데, 보통 한 달 동안 예습을 위해 그들에게 준다. 그래서 한 달 후에 다시 방문해서 훈련을 시키고, 그 다음 주 일요일에 파송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다시 방문한다. 즉 세 번 가는 셈이다. 내가 파송식에 있고 없고가 매우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고, 그래서 나는 마지막 순간인 파송식에 참석하려고 노력하고, 시간을 내고, 거기서 나는 그들의 옷에 PACE 사역자 편을 꼽아주기도 했다. 그 현장에 있는 것은 정말 나 자신에게도 좋았다.

(멜빈 자료 사용법)

나는 멜빈목사님께 감사한다. 멜빈은 매우 유용한 자료들을 개발했지만, 나는 우리가 그것들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한 것을 후회했었다. 그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했으므로 나머지는 우리에게 달려 있다.

그는 두 권의 교과서를 썼다: 1) 목회, 혼자 할 수 있는가? 2) 평신도가 이끄는 교회. 4권의 매뉴얼; 시작 매뉴얼, 훈련자 매뉴얼, 보조자료. 지도자 매뉴얼. 그리고 세 권의 재교육 자료; 소논문, 다이너마이트 미팅, 에세이. 그리고 최근에 그는 약 30개의 평목에게 보내는 편지를 썼다. 나와 우리 스태프들은 추가적인 자료를 개발하려고 노력했지만, 대부분 멜빈 박사의 개념과 철학, 그리고 그의 사역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

첫 번째 책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그는 CHPC (미국 오하이오주 칼리지힐 장로교회)에서 이 사역을 시작해 실제 현장 경험에서 배운 것을 쓴 뒤, UTS (오하이오주 유나이티드 신학교)에서 박사학위 논문을 썼고, 나중에 그것을 책으로 출판한 것이 *Can The Pastor Do It Alone?* 이다. 그것은 미국의 일반 시중의 서점들에서 잘 판매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LPM 코리아 연구소에서 한국어 번역과 또 많은 나라의 언어로 번역되었다.

사실 그것은 평신도들이 평목으로서 얼마나 PACE를 하고 있는지를 말해주는 때문에 평신도들을 위한 글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다른 교회들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온 많은 예화들이 포함되고 있다. 그들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들이다. 평신도들이 어떻게 사역했는지, 그리고 가까운

미래에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이해하는 데에 정말로 도움이 된다. 그것은 미국에서 35년, 한국에서 15년동안 사용되었으며, 현재 인도의 Nagaland에 있는 [PACE 신학교]에서, 그리고 케냐의 [멜빈대학교]에서도 잘 사용되고 있다.

(실용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이론적인 측면에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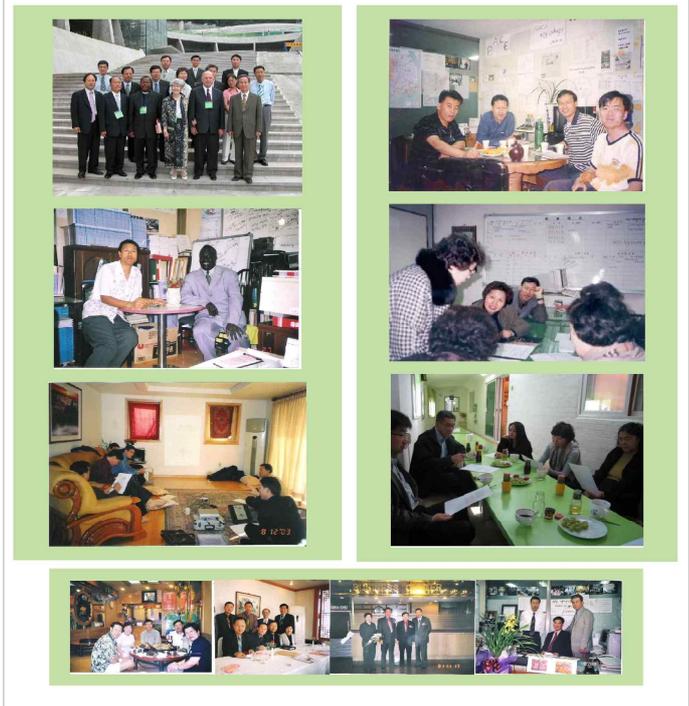
그의 두 번째 책은 더 이론적이고 학문적인 *Lay Driven Church*이다. LPM/PACE 사역 자체에 수년을 보낸 멜빈박사는 이 사역을 이끄는 담임목사를 위한 이론에 관한 책이 필요했다. 첫 번째 책은 평신도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지도자, 주로 담임목사는 두 권의 책을 동시에 봐야 한다. 그들은 사역의 관리자, 감독자이기 때문에 실무적인 측면과 아울러 이론적인 측면도 알아야 하고, 사역에 대한 지식도 더 심화시켜야 한다.

네 가지 메뉴얼: 1) 시작, 2) 훈련, 3) 보조자료, 4) 지도자 메뉴얼. 우리는 시작 시에 메뉴얼을 볼 필요가 있다. 이 사역 전에 목자들이 읽어야 하고,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알아야 한다. 그것을 읽는 것은 필수적이다. 1번부터 10번까지의 전 과정을 모르면 그 진행을 잘 모르기 때문에 금방 당황할 수 있으니, 그 과정을 읽고 숙지해야 한다. 훈련 매뉴얼은 첫 번째 책에서 나온 것이지만 더 체계적이므로 1장부터 12장까지 살펴봐야 한다. 담임목사가 직접 이 매뉴얼로 훈련한다면 좋지만, 국내에서 이 사역을 하는 200여개 교회들 중에 담임목사가 직접 훈련시킨 경우는 소수에 불과하다.

주로 본부인 LPM한국연구소에 요청을 해서, 전문가들이 교회들에게 가서 평목들을 훈련하는데, 내가 방문을 하더라도 담임목사님께서 훈련 이전에 훈련매뉴얼에 있는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지도자 메뉴얼이 있다. 이것은 훈련 매뉴얼 자체(34페이지)보다 더 많은 페이지(80페이지)다. 이 지도자 메뉴얼은 훈련자 자신에게 정말 도움이 되고, 우리 LPM 코리아는 그것을 한국어로 번역해서 아주 잘 사용했다. 나는 이 지도자 매뉴얼을 한국어로 번역하여 여러 번 읽고, 심지어 영어로도 완전히 숙지했다. 사역하고 이끄는 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은데 멜빈박사님께서 아주 잘 만드셨다.

(KOREA) LAY PASTORS MINISTRY (1999-2020)





단기프로젝트의 특징

너무 오래하면 안된다. 사람들을 동원하는 동기부여(의미를 주는것)도 단기간에 강력하게 전달되어야 한다. 단기간의 외적인 강한동기부여로(compelling force) 내적으로 자동적이고 자발적인 동기부여(impelling: willingness/I wish to...)가 생겨지도록 하는 것이 지도자의 역할이다.

그러자니 모든 에너지가 총동원 되어야한다. 결눈질하고, 결길로 갈 틈이 없다. 에너지의 소량이라도 불필요한 갈등, 경쟁의식, 비생산적인 것에 허비할수가 없다.

나는 장기적인 "사역"(15년간), 또 단기적인 "프로젝트"(15개월)도 실천해 보았다. 두가지의 특징과 또 다른 점은 무엇인가. 키워드로는 단기적인프로젝트는 "Sense of Urgency/긴박감" 이었다. 장기적인 사역은 "Long-term Leadership/장기적인 리더십"이었다.

그렇게 되려니 때로는 무리수가 따를수 밖에 없다. 다른데 신경 못쓰니 가족에게도 소홀히 할수 밖에 없다. 모든 것을 다가지면서 주어진 대업을 결코 완수할수가 없다.

주어진 사역에 미쳐야 한다. 스탠포드대학교의 제임스 콜린즈교수가 쓴책 "Built to Last"를 보면 성공한 조직, 회사, 개인을 보면 주어진 일에 완전히 미쳐있더라는 것이다. Cults-like라는 표현을 썼는데, 사교집단/이단들을 보면 제정신이 아닌듯이 보이듯이, 어떤 일에도 성공하려면 완전히 거기에 올인하고 미쳐야 된다는 것이다.

오늘 칼럼에서는 "단기프로젝트" 완성에 대해, 나의 경험을 통해 얘기해보려 한다.

단기프로젝트의 성공은 대단한 집중력과 고도의 리더십, 그리고 심플한 메네지먼트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덧붙인다면 끝나는 시점이 분명해야 한다.

단기프로젝트는 말 그대로 단기간에 마쳐야한다. 그렇기에 판단력도 빨라야하고 생각도

집중에서 에너지를 투자할때 사람들은 마치는 시간을 확실히 알고 싶어한다. 왜고하니 리더자인 우리의 에너지도 소진되지만 함께하는 사람들의 에너지도 단기간에 쏟아붓게 되니 길어지고 무제한 적인 시간투자는 사실 무리이다.

그래서 나의 경험으로봐서 단기적인 프로젝트는 2년을 넘기면 안 좋다. 제일좋은 것은 1년에서 1년 반 사이이다. 해를 두번 넘긴다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듯하다. 크리스마스를 두번 넘기면서 단기프로젝트라고 하면 사람들에게 신뢰를 못주어, 결국 실패로 끝날 확률이 높다.●



Melvin University (with alumnus) Kenya Africa since 2021



8:00	Intro to Theology (Session 1) 8 - 9:30am Abongjo	Homiletics (Session 1) 8 - 9:30am Amos
9:00	Chapel (40 min), 9:45am	Chapel (40 min), 9:45am
10:00	Intro to Theology (Session 2) 10:00am - 12pm Abongjo	Homiletics (Session 2) 10:00am - 12pm Amos
12:00	Lunch (45 min), 12pm	Lunch (45 min), 12pm
1:00	Communications Skills (Session 1) 12:45 - 2:15pm Duti	Heremeneutics (Session 1) 12:45 - 2:15pm Ornyango
2:00	Communications Skills (Session 2) 2:30 - 4pm Duti	Heremeneutics (Session 2) 2:30 - 4pm Ornyango



Melvin University
P.O. Box 183
Zip Code 40222-Oyugis
Homa Bay County
Kenya, Africa
Tel: +254-113-760477
www.melvinuniv.org



PACE Int'l Seminary (with alumnus) Nagaland India since 2015



PACE International Seminary
Sangtamilla Village
Rangapahar crossing
Dimapur-797112
Nagaland, India
Tel: +91-70056-02847
www.pisnagaland.org

